

말라기 연구

SS Galacki

시대의소망 *Desire of Ages*

머리말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적인 개념적 철학은 생철학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기가 살지 않는 누각을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철학자는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는 그 속에서 살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한 풍자적인 비유를 들었다.

니그렌이라는 철학자가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폭적이고도 완전하며 성경적인 동시에 일반적인 개념까지 포괄하여 쓴 체계적인 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빼놓은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책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책을 사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책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목사님에게 젊은 지성인이 찾아왔다. 그는 중대한 회의가 생겨서 찾아왔다고 하였다. 목사가 그것이 뭐냐고 묻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생겼으니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이때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소. 니그렌이 쓴 책을 사보면 어떤 멍텅구리라도 다 알 수 있소. 그러니 내 설명을 들을 필요 없이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서 보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지성인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풍자가 있다. 이와 같이 목사님들

이 사랑의 설교를 백 날 하여도 지적 동의나 개념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산 인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지게 된다. “내가 네게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9).

우리는 이 말라기서 연구를 통하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목차

Contents

말라기서 연구의 필요성	7
서론	9
제 1장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7
제 2장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35
제 3장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53
제 4장 “너희는 …… 기억하라”	75

말라기서 연구의 필요성

1.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퍼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GC, 488).
2. 예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을 자기가 계신 곳으로 데려 가실 것이다. 그 때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며,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당신 자신이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보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분이 이와 같이 오시기 전에 그의 백성은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여 예수의 완전한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완전한 상태 - 곧 예수의 완전한 형상이 각 신자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상태 - 이것이 하나님

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성소 정결에서부터 성취된다. 죄를 말소시키는 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모든 허물이 마치는 것이며,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모든 죄가 끝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우리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과 달리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의 죄들이 말소되게 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죄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야 한다(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123~125).

3.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GC, 425).

4. “죄를 끝낸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 있는 천성이나 시험을 받음에서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죄 있는 유전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데서 끝난다거나,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들인 내부나 외부로 부터의 강력한 유혹의 세력을 느낌으로서 부터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압력들에 반응하기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내부나 외부에서 오는 모든 시험에는 NO!라 하고, 성령님께서는 YES!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시 40:8), (1888서론, 131).